

국어학 연구저술의 어제와 오늘

국어사 · 방언학 · 음운론 · 문법사 등 각론 연구 집대성 작업 활기

우리나라 국어학 연구의 역사는 100여년 안팎이다. 본격적인 근대화가 진행된 1895년경부터 주시경을 위시한 유길준·김규식·김희상 등은 국권을 상실하는 1910년까지 국어학 연구의 1기를 이끌어간다. 이 시기는 근대화의 문턱에서 국어·국문의 개념을 정립하고,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운명을 예감하며 독립과 자존의 근거로서 국어학의 연구자세를 가다듬는 때다.

실천학문으로 출발

국어학 1세대는 국어학자라기보다 문법학자에 가까웠는데, 이들이 펴낸 책도 《대한문헌(大韓文典)》(유길준, 1909), 《대한문법》(김규식, 1908~1909?), 《초등국어사전》(김희상, 1909), 《국어문헌음학(國語文典音學)》(주시경, 1908) 등으로 대개 문법책이다. 이 책들은 국어음성일반과 품사·문장론 등의 문법을 주로 다뤄 국어연구의 밑거름이 된다.

국어학 연구의 2기는 광복 전까지. 시기가 식민지 치하인 만큼 국어학은 역사학과 함께 민족의 자긍심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실천적인 학문으로 연구됐다. 국어연구의 요람으로 1913년 발족한 '조선언문회'가 회칙에 "조선 언문의 실행이 (이 연구회의) 목적"임을 명기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선언문회' 산하의 '조선어강습원'은 국어학 연구의 2세대를 키우는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현대국어 연구의 싹을 틔운 최현배·김두봉·이규영·신명균·정열모·이병기·권덕규·이윤재 등이다. 이들의 《말모이》(주시경, 1911?), 《조선말본》(김두봉, 1916), 《말듬》(이규영, 1913?), 《한글적색》(이규영, 1916~1919) 등은 외설 최현배가 1937년 펴낸 《우리말본》으로 성과가 모아져 우리말본의 정서법을 완성하는데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 현대 공통어를 중심으로 음성론과 문법론을 집대성한 이 책은 국어학 연구의 준령이다.

국어를 국어로 부르지 못하고 조선어로 불러야 하는 참혹한 시기였지만 새로 개설된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어문학과는 국어 연구의 전기를 만든다. 80년대까지도 국어사전의 감수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던 이희승·이승녕을 비롯해 방중

현·김형규 등이 대학에서 익힌 서구 이론을 접목해 국어학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희승이 펴낸 《국어학 논고》(1947)에서 통시적·공시적·비교적·보조적 연구라는 네 가지 방법론이 제시되고, 이승녕은 《조선어음운론》(1949)을 통해 독일·프랑스의 역사언어학적 방법을 우리 국어학 연구에 도입한다. 이 시기에는 그간의 국어학 연구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작업도 하나씩 나타났는데, 최현배의 《한글잡》(1940), 김윤경의 《조선문자 및 국어사》(1938)가 대표적이다.

각론으로 분화되며 연구 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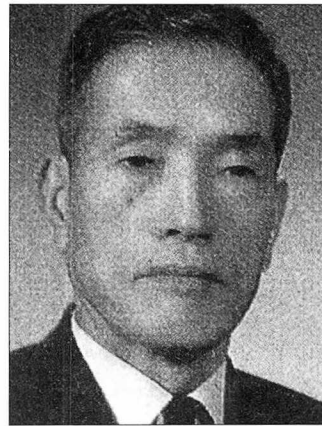
해방이 되자 전국의 각 대학에는 국어국문학과가 하나 둘 개설되기 시작한다. 몇 개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국어학 연구는 그 폭을 넓혀 각론으로 분화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문헌에 대한 서지·문헌학적 연구가 활발해진 것도 이즈음. 현대국어에서 중세국어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연구성과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한다.

방중현은 어휘자료를 정리한 《고어재료사전》(1946)과 훈민정음 자체와 그 변천의 역사를 다룬 《훈민정음 운동사》(1948)를 잇따라 펴내고, 홍기문은 《정음발달사》(1946)에서 훈민정음 관련자료를 우리글로 해설하고 우리 문자의 발달과정을 서술했다.

일관성 있는 이론과 정비된 체계를 갖춘 연구환경에 힘입어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는 개론서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1950년에서 60년 사이의 일. 《국어학개설》(상권, 이승녕, 1954), 《국어학개론》(김형규, 1949), 《국어학개설》(이희승, 1955)이 모두 이때 나온 책이다. 이들 개설서는 음운론·어휘론·문법론을 국어학의 기본 체계로 잡고 여기에 계통론·형태론·국어지리학·문자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중세국어 연구의 한 갈래로 우리 고전가요에 대한 주석적 연구도 진행됐다. 양주동은 《여요전주》(1947)를 통해 중세어 문법 일반에 대한 이해의 기틀을 마련했고, 허웅은 《용비어천가》(1955) 연구서를 펴냈다. 김형규는 《국어학사》(1954)를 통해 이제까지 국어학 연구의 성과를 묶는다.

1950년 한국전쟁은 국어학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 해방 후 국어학계의 주축으로



국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쌓는 데 큰 업적을 남긴 주시경·최현배·이희승·이승녕씨. (윗줄 왼쪽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던 이극로·정열모·홍기문 등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북한으로 가면서 국어학 연구는 남북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북한은 언어순결운동을 통해 대대적인 국어정화운동을 펴고, 남한은 구조주의 언어이론이라는 서구이론을 받아들여 국어학 연구에 접목하는 시기가 65년까지 이어진다. 프랑스의 소쉬르학파보다 미국의 기술언어학과 프라그마학파의 구조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허웅은 《국어음운론》(1959), 《국어음운학》(1965)을 펴내고, 문법과 음운중심의 국어학에 의미론을 도입한 《국어문법어연구》(김민수, 1960)도 나와 새로운 시각의 국어학 연구성과가 나타난다.

한편 이 시기에는 총론격에서 각론으로 국어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해 지금의 국어학 연구분야를 정착시켰다. 국어사와 방언학 방면, 중세어의 음운론과 음운사, 문법론과 문법사, 비교문법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다. 남광우의 《고어사전》(1961), 유창돈의 《이조어(李朝語)사전》(1964), 《국어음운학》(허웅, 1965), 《이조국어사연구》(유창

돈, 1964)는 중세어의 음운론과 음운사를 다룬 저작이고, 문법론과 문법사 분야에서는 《중세국어문법》(이승녕, 1961)이, 비교문법 연구성과는 《국어조어논고》(이승녕, 1961)로 터어키어와의 비교연구서다. 방언연구분야에서는 최학근이 《국어방언학서설》을 펴내 방언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현평효는 《제주도 방언연구》(1962)를 썼다.

훈민정음 제정 이후로 국어학사의 개념을 정립한 것도 이 시기의 성과. 이러한 개념정립을 토대로 국어학사 저술이 활발해진다. 이승녕의 《국어학사》(1956), 유창균의 《국어학사》(1959), 유창균·강신항이 함께 쓴 《국어학사》(1961), 김민수의 《신국어학사》 등이 나온다.

구조국어학의 도입과 국어학 연구의 갈래가 안정되자, 외국의 형성·생성이론이 통사론 분야에 새로 도입된다. 특히 70년대는 중세국어 연구자료를 활발하게 발굴돼 이 방면의 연구가 활발해진다. 가장 먼저 묶인 연구성과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엮은 《언어·문화사》. 허웅의 《우리 옛말본》(1975)은 중세국어 연구의 중간결산에 해당한다.

동행하는 즐거움

늘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든든한 버팀목의 구실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집필: 자서전·회고록·개인출판·위인전 등
운문: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사전류·참고서류·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백과사전·잡지·사보·학회지·교지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7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3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
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
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사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

국어학 연구는 대중적인

연구성과가 가장 빈약한

편이다. "말하는 대로

글로 쓴다"는 훈민정음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 오히려 논문을 통해

'어렵게' 국어를 쓰고

있다는 말은 국어학 연구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성과의 집적이 종합화로 이어진 것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한국문화사대계》를 기획하면서다. 이기문·김완진·안병희·이승녕·박병채·강신항·김민수 등 내로라하는 국어학자들이 집필한 《언어사》(1967)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했다.

근대·고대국어 연구도 본격화

이 책은 크게 한국어 형성사·발달사·방언사·문자발달사·한국어학사로 구성되고, 한국어발달사 분야를 음운사·문법·어회사로 세분해 국어학사 연구의 틀을 잡았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연구경향을 뒤로 돌려 근대 시기 국어학 연구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작업도 활발했다. 조선시대 신경준의 업적을 개평기한 강신항의 《운해 훈민정음연구》(1973), 박태권의 《최세진연구》(1974), 이기문의 《개화기의 국문연구》(1970)가 나온다.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국어 연구 100여년을 맞아 안정된 국어학 연구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방언·중세어·고대어 연구처럼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하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자료의 절대적 빈곤으로 본격화하지 못한 구결·이두·향찰 연구를 통해 고대국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80년대에 쏟아진 고대국어연구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향가해독법 연구》(김완진, 1980), 《향가와 만엽집가의 표기법 비교 연구》(이동철, 1983),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이병선, 1982),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안병희, 1978), 《계

림유사 고려방언 연구》(강신항, 1980), 《차자 표기법 연구》(남풍현, 1981) 등이다.

70년대의 개화기 국어연구는 80년대에도 계속 이어진다. 서울대의 고영근 교수는 "주시경 등 개화기 국어학 연구는 본 궤도에 오른 편"이라며 "1920·30년대 국어학 연구 업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어학사 연구도 분야별·시대별·인물별로 세분화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이익섭)의 발족으로 90년대 국어학 연구는 새 국면을 맞았다. 90% 이상 현대국어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경향도 쇠신해야 하고, 연구성과를 현실에 적용하는 응용국어학도 연구대상이다. 한 나라의 문화적도로서 언어정책 수립은 응용국어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현대국어의 원래 모양을 찾기 위한 고대국어 연구는 1988년 구결학회(회장 고영근) 발족으로 비로소 숨통을 뚫는데, 관동대학의 김성중 교수는 "구결학회는 73년 발견된 《구석인왕경(舊釋仁王經)》을 토대로 고려시대 구결 자료를 연구하고 있다"며 "자료가 없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고대국어 연구"라고 고대국어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95년 학회체제를 갖춘 구결학회가 곧 연구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은 남북한 언어이질화문제를 중요한 연구과제로 올려 놓았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최용기 연구관은 "북한의 국어정책 연구와 국어학 연구를 통해 남북한 언어이질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며 북한언어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국어학 연구 분야는 대중적인 연구성과가 가장 빈약한 편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몇몇 대학의 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말하는 대로 글로 쓴다"는 훈민정음 취지를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 오히려 최대한 '어렵게' 국어를 쓰고 있다는 말은 국어학 연구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나 출판계 사람들이 이런 답답한 현실을 보다 못해 도리어 우리말 보급에 팔을 걷어 부치는 최근의 경향도 이런데서 기인한다.

— 이현주 기자